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11.4. ~ 11.10.)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왕하 17 - 23	딤후 3 - 히 5
	개인	호 10 - 율 2	시 129 - 143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불가항력적 은혜		
	<p>빌립보서 2장 13절</p> <p>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p>		



시편 129-131편 / 주님을 기다리는 노래**개요**

- 129:1-8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130:1-8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131:1-3 내 영혼이 젓 떼 아이와 같도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기를 바라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 전부터 여러 번 괴롭힌 자들이 승리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시 129:1,2). 그들은 마치 밭고랑을 갈듯이 이스라엘의 등에 고랑을 길게 지었습니다(시 129:3). 그러나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습니다(시 129:4).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입니다(시 129:5-7). 혼한 축복의 인사도 없기를 바랍니다(시 129:8).

시편 130편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주시길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시 130:1,2).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시나 또한 그에게 사유하심(용서)이 있습니다(시 130:3,4). 그러므로 시인은 주를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간절히 기다립니다(시 130:5,6). 또 온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길,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합니다(시 130:7,8).

시편 131편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시 131:1). 그 모습은 마치 젓 떼 아이가 어머니 품을 겸손히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시 131:2,3).

주님 앞에 아무도 자기 공로로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롬 3:10).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속량하십니다(시 130:8). 주님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으로 인도합니다(시 130:4).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죄 사함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편 132-134편 / 성전을 향한 노래**개요**

- 132:1-18 다윗의 겹손을 기억하소서
 133:1-3 형제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34:1-3 성전에서 서 있는 종들이 송축하라

시편 132편은 다윗의 서원을 기억해달라는 회중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를 서원했습니다. 시인은 다윗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시 132:1-10).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시 132:11-18).

시편 133편은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은 아름답습니다(시 133:1). 아론에게 부여된 기름처럼 머리에서 흘러 내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제사장의 흉패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형제의 연합을 묘사합니다(시 133:2). 북쪽 높은 험문 산에서 남쪽 얇은 시온 산으로 덮힌 이슬처럼 풍성한 복이 내릴 것을 소망합니다(시 133:3).

시편 134편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종들(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시 134:1-3).

마침내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시 134편). 밤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의 의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됩니다. 나의 예배는 누구를 향해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시편 135-136편 /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개요**

135:1-21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136:1-26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35편은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향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의 종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외칩니다(시 135:1-3).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택하셨고,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며,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시 135:4-7). 그 일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일로 나타났습니다(시 135:8-12).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시 135:13,14). 우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대조됩니다(시 135:15-18).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이스라엘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주를 찬양하라고 다시 한 번 외칩니다(135:19-21).

시편 136편은 135편과 비슷한 주제로 노래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칩니다(시 136:1-3).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시 136:4).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시 136:5-9).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시 136:10-25). 시인은 다시 한 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라고 외칩니다(시 136:26).

많은 찬양의 노래가 있고, 때로는 긴 가사의 찬송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과 그의 행적을 드러내어 높이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말은 세상의 모든 말로도 쓰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행적 전부를 나타내기엔 모든 시편의 노래도, 모든 성경의 기록도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요 21:25).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유한자가 어찌 초월자를 노래하고 높여 드리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 이루신 일로 인해 감사하며 주를 찬양할 뿐이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편 137-138편 / 낮은 자들의 노래**개요**

137:1-9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부르는 노래

138:1-8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기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시온)을 생각하며 읊니다(시 137:1). 노래하는 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수금을 나무에 겁니다(시 137:2-4). 그러나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시 137:5,6). 그들이 포로될 때 즐거워 한 에돔과 그들을 끌고 간 바벨론을 향해 복수해주시길 기도합니다(시 137:7-9).

시편 138편은 신실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주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시 138:1). 여호와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어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시 138:2,3). 여호와의 영광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왕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왕이 노래해야 할 만큼 큼니다(시 138:4,5). 하나님은 한 없이 높으시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시 138:6-8).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낮은 곳을 돌아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낮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써 또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데려가십니다(마 5:3).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주를 노래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낮은 자를 살피시는 주님, 높으신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시편 139편 / 나를 아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개요**

- 1-6 전지하신 하나님
- 7-12 편재하신 하나님
- 13-18 전능하신 하나님
- 19-24 살피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며, 자신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아시며, 그 모든 인생길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1-6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떠날 수 없습니다(7-12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사람을 지으셨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로서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13-18절). 그렇기에 자신을 흑암도 숨길 수 없습니다(12절).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치실 것임을 믿으며 그들로부터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19-22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데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그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시길 구합니다(23,24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나다나엘은 이미 그를 아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요 1:49).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50).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더 큰 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어 주님의 날을 향해 살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신자의 영광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믿음도 아시며,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저 주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시길 구할 뿐입니다.

시편 140-141편 / 주 앞에 사는 삶을 위한 기도**개요**

140:1-13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141:1-10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0편은 악인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악인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외칩니다(시 140:1-5). 악인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지 말기를 구합니다(시 140:6-8). 오히려 그들을 향해 재난이 덮치길 구합니다(시 140:9-11절). 이 모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는 믿음에 있습니다(시 140:12).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살 것입니다(시 140:13).

시편 141편은 성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저녁 제사와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길 소원합니다(시 141:1,2). 그는 자기 입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자기 행동을 지켜주시길 구합니다(시 141:3,4). 모든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고 악을 대항하고자 합니다(시 141:5-7). 주님이 그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시 141:8-10).

신자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엡 4:15).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주께 맡기며 스스로를 죄에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진리를 말할 때에 사랑의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바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0일(주일)

왕하23

히4

욘2

시142-143

시편 142-143편 / 기도

개요

142:1-7 토로

143:1-12 의뢰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서 쓴 시입니다. 그는 소리 내어 기도하며 그 원통함을 토로합니다(시 142:1,2). 주님은 모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알고 계셨습니다(시 142:3).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시 142:4). 오직 주님만이 자기 피난처이심을 부르짖습니다(시 142:5-7).

시편 143편은 구원과 인도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구합니다(시 143:1-4). 그는 옛날에 주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시 143:5,6). 주의 말씀을 듣고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시길 구합니다(시 143:7,8).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길 기도합니다(시 143:9-12).

기도에는 원통함에 토로하는 마음도 있고, 상한 심령으로 간신히 붙잡는 연약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이고도 인간적인 마음도 기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그런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우리 삶에 희망이 주님 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주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풍성한 열매를 더하는 순모임

<약 2:14-26,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1.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위'의 대조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대조인가요?
2. 행함 없는 믿음의 사례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15-17, 18-20절)
3. 행함 있는 믿음의 사례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21-24, 25-26절)
4.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 믿음과 행함 사이의 어려움을 경험할까요?
5.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주님께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6.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응하여 주의 역사에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나눔

1. 교회를 위한 기도

- 1)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살도록
- 2)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도록
- 3)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도록
- 4)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 5)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2. 나라를 위한 기도

- 1)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 2)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 3) 다음 세대 지도자가 준비되도록

3. 나를 위한 기도

- 1)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 2)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목상한 말씀을 토대로